

漢拏山

第9号 50周年記念号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

漢 拏 山

第9号

50周年記念号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

● 趣 旨 書

漢拏山 밑에서 자라난 우리들은 複雜多難한 日本에 居住하면서도 恒常 그 리운 故鄉을 잊을 수 없었고, 憧憬해 왔다.

今般에 設立을 보게 된 濟州開發協會는 在日濟州道民이 鄉土開發의 一翼을 擔當함으로써 道民의 文化生活을 向上시키는데 이바지해 보자는 愛鄉心에서 出發한 것이다. 鄉土의 樂園化는 오직 鄉土出身者의 切實한 要望이며 自然스런 欲求이다. 우리들이 無限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故鄉 濟州道の 現狀을 보면 農耕 漁撈等 一般生活樣式은 古代的인 形態가 그대로 남아 있어 時代의 潮流와 步調를 갖지 못하여 現代의인 開發이 없는데서 아직껏 後進性을 脫皮치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寒心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世界는 宇宙時代에 들어선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非文化的 生活條件下에서 헤매고 있는 道民의 現狀을 到底히 傍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先祖의 崇高한 開拓精神을 받들고 創意性을 發揮하여 鄉土開發에 先驅의인 役割을 擔當하는 것이 우리들의 義務라 생각하는 同時에 多年間 海外에서 苦生해온 보람을 여기에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濟州道에 無盡藏인 水陸資源에 對한 近代의인 開發事業과 交通, 教育, 文化施設 等の 建設은 이 以上 遲延시킬 수는 없는 急務인가 한다. 그러나 이 巨大한 事業이 短時日에 或은 個人의 힘으로써 達成하기 어려운 것인 줄을 熟知하고 있는 우리들은 于先 在日濟州道出身者를 網羅한 組織體를 結成하고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면서 鄉土發展을 爲한 事業을 推進할 수 있는 基盤을 닦아놓자는 것이다. 우리들의 자랑하는 團結과 愛鄉心 그리고 勤儉性과 相互協助하는 美風의 傳統을 더 一層 發揮하여 이 聖業이 達成되도록 在日濟州道民 諸賢의 積極的인 協力이 있기를 要望하는 바이다.

1961年 2月 25日

在日本關東濟州道民協會
(在日本濟州開發協會)

漢拏山の元で育った私達は、複雑多難な日本に居住しながらでも常に懐かしい故郷を忘れることなく、憧憬してきた。

今般、設立することになった済州開発協会は、在日済州道民が郷土開発の一翼を担うものとし、道民の文化生活の向上に貢献しようという愛郷心から出発したものである。郷土の楽園化はただ郷土出身者の切実な要望であり、自然な欲求である。私達が無限に愛し、懐かしんでいる故郷済州道の現状をみれば、農耕魚撈など一般生活様式は古代的な形態がそのまま残っており、時代の潮流と歩調を合わせられず、現代的な開発がないところからまだ後進性を脱皮できずにいることは、本当に情けないことであるといえないでもない。

世界は宇宙時代に入り、今日私達はこのような非文化的生活条件下において、さまよっている道民の現状を到底傍観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ここに私達は先祖の崇高な開拓精神を受け入れ創意性を発揮し、郷土開発に先駆的な役割を担うのが私達の義務であると考えると同時に、多年間海外で苦勞してきた甲斐をここでさが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済州道に無尽蔵な水陸資源に対する近代的な開発事業と交通、教育、文化施設等の建設をこれ以上遅延させないことを急務とする。しかし、この巨大な事業が短期間、あるいは個人の力で達成するのが難しいことであると熟知している私達は、まず在日済州道出身者を網羅した組織体を結成し、相互間の親睦を図りながら郷土開発の為の事業を推進する基盤を磨いておくのである。

私達の誇りである団結と愛郷心、そして勤儉性と相互協助する美風の伝統をより一層発揮し、この聖業を達成するよう在日済州道民諸賢の積極的な協力を得ることを要望する。

1961年 2月 25日

在 日 本 関 東 済 州 道 民 協 会
(在日本済州開発協会)

濟州島——ユネスコ世界自然遺産に登録される

2007年6月、世界遺産委員会総会において韓国が申請した濟州島の自然が、自然環境のノーベル賞と称されるユネスコ世界自然遺産に認定され、登録名は「濟州火山島と溶岩洞窟」と命名された。

世界遺産には文化遺産、自然遺産、複合遺産の3種類があり、韓国では「昌徳宮」、「仏国寺と石窟庵」をはじめ7件の文化遺産を有しているが、自然遺産に登録され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

自然遺産登録された「濟州火山島と溶岩洞窟」の対象は、「漢拏山天然保護区」と「城山日出峰」、「拒文岳(コムシオルム)寄生火山系溶岩洞窟群」の3地区から成る。(本文154頁へ)

目 次

● 趣 旨 書	2
濟州島世界自然遺産	4
創立50周年記念式典	6
会長あいさつ	12
祝 辞	13
● 執行部紹介	16
メッセージ	18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2001～2010)	28
折込 濟州道観光地図	49
特集 濟州・新世界七不思議自然版選定 日本地域推進委員会発会式	51
期別10年の歩み(2000.6～2010.5)	64
Photo digest 40年の軌跡	197
● 歴代会長	214
● 規 約	216
編集後記	220



漢拏山



万丈窟



城山日出峰



50th

anniversary

盛大に！創立50周年記念式典



高尚弘会長挨拶



2011年1月22日に、上野精養軒において、「創立50周年記念式典・2011年家族同伴新年会及び成人式」が450名の参加を集め、盛大に開催された。来賓として、済州道からは、禹瑾敏道知事夫妻、文大林道議会議長、許香珍済州大学総長、玄丞倬済州商工会議所会長夫妻が参席し、金賢中総領事や許孟道民団中央本部副団長をはじめ各民団傘下団体役員、各道民会会長らも参席した。

第1部式典が始まり、高尚弘会長は「50周年の道民会の歴史をふりかえり、遠く異国に地をおき、故郷の発展の為に、尽力しながら会を継続させてきた歴代の会長をはじめ、理事・会員の方々に敬意を表し、その間インフラ整備はもとより、現在済州道の基幹産業にまでなった蜜柑栽培事業を発展させてきた。また、2007年には、済州道が世界自然遺産に登録され、今年は世界7大自然景観の最終候補地に残り、日本地域委員長に呉賛益常任顧問が就任した、選ばれたときには、世界観光名所への契機となるでしょう」と挨拶があった。

2011年 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も



禹瑾敏道知事



文大林道議会議長



許香珍済州大学総長



金賢中総領事



禹瑾敏知事は「道発展のために、同胞の皆様がこれまで貢献してきたことを忘れずに、今後
も故郷発展のために一層緊密な関係を構築していきたい」と祝辞を述べた。その後、創立 50 周
年を記念し、高会長から歴代会長を代表して金和男顧問に記念品を贈呈。禹知事からは、当協
会に済州道地図の描かれたロールスクリーンが贈られた。呉賛益常任顧問と高会長にはさまざ
まな特典が受けられる在外済州道民証が手渡された。

また成人式には 6 名が出席、新成人者に高会長は「立派に育ててくれた両親に感謝し、目標
をもって、大人として頑張ってください」と激励した。新成人を代表して金壮栄さんの答辞が
あり、李大浩副会長の閉会辞をもって式典は終了した。第 2 部に入り、会場を移動し、呉賛益
常任顧問の乾杯音頭により、祝賀会がスタートした。歌手のリンユミと尹惠英が歌を披露し、
ミスターカラーのマジックショーがあり、最後に恒例のビンゴゲームと抽選会で会場は大いに
盛り上がりを見せ、閉会となった。

50th
anniversary



歴代会長代表金和男顧問に額縁贈呈



金宇男国会議員



金才允国会議員



許孟道民団中央副団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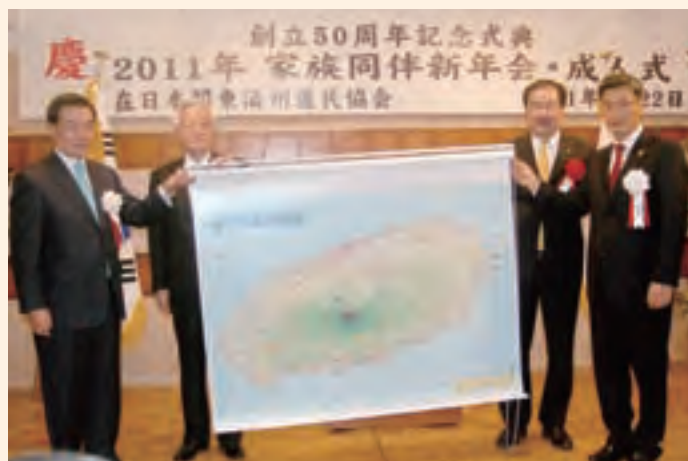
新成人へ記念品贈呈



新成人代表金壮栄氏答辞



呉常任顧問と高会長に済州在外道民証贈呈



禹知事より済州道地図ロールスクリーン贈呈



50th anniversary



呉賛益常任顧問の乾杯音頭で祝賀会スタート



姜太善総聯合会会長



高埤鉉・高章守顧問と来賓



在日済州婦人会役員





ごあいさつ

会 長 高 尚 弘



当協会が創立50周年を迎えるにあたり、とても感慨深い思いであります。半世紀50年、遠く異国に地をおき、故郷の発展のために尽力しながら、会を継続させてきた歴代の会長をはじめ、理事・会員の皆様に尊敬の念を抱かざるを得ません。

1961年2月25日、上野「宝ホテル」において創立総会が開かれ、会の名称を「済州開発協会」とし、趣旨文が承認され、会の運営がスタートしました。この50年の間には、さまざまな苦労を重ねながら、故郷済州道の発展を思い、開発事業をはじめ、基幹産業に多大な貢献が成されたことは広く知られております。

特に、道路、電力および水道などのインフラ整備はもとより、出身地域の発展のために、協会関係者の方が多大なる貢献をされました。また、今では済州道の基幹産業にまでなったみかん栽培事業を、各機関の方々と意見交換等を積み重ねながら、発展させてきました。

皆様もご承知のとおり、この間、済州道はすばらしい発展を遂げました。この急速に変化する国際情勢をいち早く認識し、済州特別自治道とし、地方自治を推進するモデルケースとして、「平和の島」、「国際自由都市」を目指し、行政を推し進めております。

また、2007年6月には、「漢拏山天然保護区」、「城山日出峰」と「拒文岳（コムンオルム）寄生火山系溶岩洞窟群」の3地区が、世界自然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このことが世界の観光名所として、発展する契機にな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その間、当協会も2度名称を変更し、現在の「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になりました。協会の運営におきましては、財政基盤の確立のため、2002年11月に株式会社済京が設立され、さまざまな角度からの多大な支援のもと、財政基盤も磐石になっております。婦人会及び青年部の活動に理解を示し、次の世代を担う若い人たちを育て、これからいっそうの発展を願うものであります。

最後に、微力ではありますが、済州人の親睦団体であることを念頭におき、執行部の力をお借りして、協会の運営に誠心誠意あたる覚悟であります。

会員皆様のご協力を切にお願いいたしまして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祝 辞

濟州特別自治道知事

禹 瑾 敏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우근민입니다.

땀과 노력, 청춘을 걸고 써내려 오신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는 관동지역에서 가장 오래 된 전통과 단합을 자랑하는 재일한 국인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이주역사 속에서 제주인의 자긍심을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대하여 제주인의 한사람으로서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본 이 우리 제주도와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통념을 뛰어 넘어 발전적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것은 재일제주인 여러분께서 밑거름이 되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 일본에서 함께 했던 신년하례회, 지난 2월 18일 '제주 — 세계7대자연경관 일본 지역 추진위원회 개소식' 과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중앙위원회와 학교법인 백두 학원 방문을 통해서 재일제주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관동제주도민협회가 일본사회에서 더욱 발전하고 존경받는 구심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주 — 세계7대자연경관 일본지역 추진위원회 개소식' 에서 일본 정부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석했던 사실도 여러분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일제주인 여러분께서 제주발전에 대한 기여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동제주도민 여러분의 삶과 역사를 제주역사의 큰 발자취로 기억하고 기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들어서는 재일본제주인센터와 제주도 인재개발원 향토 학교 등을 통해 재일제주인들이 문화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꼭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성원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관동제주도민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근 민 올림

祝 辞

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 総領事 金 辰 植



재일동포 사회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강한 단결력을 보여 온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 거주 전체 재일동포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제주 출신 동포들은 그간 재일동포 사회의 발전과 한일 우호친선을 위하여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왔으며,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시가 東京都의 아라카와구(荒川区)와 2006년 우호도시협정을 맺었으며, 두 도시간의 청소년 교류, 고령자 복지 등 여러 분야 친선교류활동에 재일본관동 제주도민협회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주도와 일본관동 두 지역간 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높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고향 제주도가 UNESCO가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서, 전 세계의 약 4백여 개가 넘는 수많은 대상지역을 제치고 24개 최종결선 후보지역에 선정된 것은 그 자체 만으로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최종 선정이 될 경우 제주도에 대한 문화·관광 홍보는 물론 우리나라의 브랜드파워가 더욱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초 결성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일본지역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전개해 나가야겠습니다.

과거부터 바람, 돌, 여자가 많아 三多島로 유명하였던 제주도가 금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을 계기로 이제는 『세계적인 觀光地』가 많고, 다시 찾고 싶을 정도로 『人心』이 풍부하며, 아울러 『국제적인 人材』가 많은 새로운 三多島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대한민국이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광복과 건국, 그리고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한 결과, 대한민국은 전후에 독립한 국가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産業化와 民主化를 모두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성숙된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선진 일류국가로 나가면서 통일 한국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역사 창조에 재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여러분을 포함한 재일동포 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년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적인 해였으며, 한일관계는 양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재일 동포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공존·공영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관계 100년의 원년이 되는 2011년부터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더욱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존재인 일본 거주 동포 여러분의 계속적인 분발과 협력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간 조국이 발전을 할 때나 어려울 때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높은 관심과 함께 뜨거운 애국심을 발휘해 주신 동포 여러분의 나라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일본관동 제주도민협회의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祝 辞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団長 鄭 進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が創立 50 周年을 맞이하여 記念誌를 発刊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 드립니다.

東京을 中心으로 関東地方에 居住하는 在日済州人들이 하나로 모여 貴協會가 첫 발을 내딛은지 半百年, 그 間 故郷의 發展을 爲해 아낌없는 支援과 愛情을 쏟아 오신 歴代 會長님을 비롯한 役員各位와 會員 여러분께 깊은 敬意를 表합니다.

여러분의 故郷 済州道가 사람과 自然이 共存하는 唯一한 神秘的인 自然地域으로 認定받아 世界 最初로 유네스코 自然科学分野 3 冠을 達成하고 世界에서 가장 아름다운 7 大 自然景觀의 候補地로 選定 되었음은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済州道の 郷土開發과 經濟, 教育, 文化, 觀光의 發展과 復興의 一翼을 担当해 온 在日済州人の 故郷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는 快挙라 할 수 있으며 오늘의 아름다운 済州道 또한 在日済州人 없이는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現在 60 万 在日同胞 中 済州 出身의 同胞는 約 10 万名에 達합니다. 済州道の 人口가 約 55 万名인 것을 보면 적지 않은 數 임을 알 수 있듯이 在日済州人은 여러분의 故郷 済州道 뿐만 아니라 在日同胞社会에 있어서도 소중한 存在이며 後世로 이어져야하는 歴史입니다.

半百年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에게 그리고 未來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에게 在日済州人으로서 그리고 在日同胞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高揚시킬 수 있는 알차고 값진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 50 周年 記念誌」의 発刊을 期하여 더 많은 奮發을 期待합니다.

앞으로도 喜怒哀樂을 서로 나누며 따뜻한 人情이 있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사는 済州사람의 伝統을 이어 받아 済州道는 勿論 더욱 活氣차고 빛나는 在日同胞社会의 一翼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貴協會의 發展과 會員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 執 行 部



常任顧問
吳 贊 益



第27代会長
高 尚 弘



副会長
金 成 日



副会長兼財務部長
宋 信 彦



副会長兼組織部長
李 大 浩



副会長
吳 典 秀



副会長
高 隆 博



総務部長
邊 彰 満



事業部長
金 璟 玉



宣伝部長
朴 時 男



国際部長
姜 榮 真



渉外部長
宋 暎 民



総務次長
安 次 男



青年部長
朴 永 鎮



監 査
姜 丞 宝



監 査
金 洪 汶

「愛郷無限」を心に抱いて

常任顧問 呉 賛 益



私は1995年、金和男顧問が当協会の第20代会長に就任されたときに、縁がありまして誘われ、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財務次長として入会したのが、当協会との関わりの始まりであります。

かねてより済州道にこの人ありと聞き及んでおりました、私の尊敬する故金坪珍顧問のご長男で、私と同年代ということも重なり、金和男会長に大いなる親近感を覚え、微力ではありますが、協会発展のために協力・奉仕する決意を固めたことが昨日のことに思い起こされます。

このたび創立50周年を迎える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は、1959年9月に荒川区「菊水園」において、12名の参加者による第1次発起人会を持ったことに始まります。

席上、在日本済州道出身者がおかれている状態や、愛する郷土済州道の将来に対する議論が沸騰し、会合を重ねるうちに賛同者がしだいに増え、1961年2月25日、上野「宝ホテル」において、名称を「済州開発協会」とする創立総会が開かれました。会長以下役員を選出、会則と協会設立宣言文ともいえる「趣旨文」を満場一致で可決承認し発足した、歴史と伝統を誇る在日済州道出身者による「済州人」のための親睦団体であります。

趣旨宣言文には、まさに協会設立の精神、あり方、将来への方向性が示されており、その当時より「済州道の無尽蔵な水陸資源に対する近代的な開発事業と、交通、教育、文化施設の建設をこれ以上遅延させないことを急務とする」と説かれております。50周年を経た今日、近代都市として跳躍する済州道の姿を身近に接するたびに、先達の済州道の将来に対する鋭い洞察力と先見性に敬意を表するしだいでもあります。

さらに他方では、「多年間の海外での苦勞してきた甲斐をここで捜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と結んでおり、在日済州道民の精神的なバイブルともいえるすばらしい宣言文であります。

在日1世の済州出身者である諸先輩方が、30歳代の若さで、かくも崇高な理念のもと豊かな見識を持ち合わせ、乾坤一擲^{けんこんいつてき}の気概でこの困難な在日社会を生き抜き、ミカン栽培事業等々の故郷開発事業、人材育成事業ならびに教育行政に多大の貢献をなされてきたことは、在日同胞社会はいうまでもなく、本国においても広く知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在日同胞社会の世代交代が進んでおりますが、当協会においてもご多分にもれず、人員構成において2・3世の時代とは様変わりしてまいりました。しかしながら、草創期の諸先輩の精神は今日も依然として引き継がれております。

近年躍進を続ける済州道では、2002年ワールドカップサッカー大会が、西帰浦にて開催され、世界の注目を浴びながら成功裏に終了したことは記憶に新しいところであります。1988年首都ソウルにおいて開催されたオリンピックとともに、全世界に韓国の国際的

地位を高め、民主主義を標榜する平和な先進国家への仲間入りを果たすうえで、画期的な役割を担った国家行事でありました。

さらに2007年には済州道の自然が、自然環境のノーベル賞と称される「ユネスコ自然遺産」に認定されました。韓国は7件の文化遺産を有していますが、自然遺産に登録され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あります。

国際自然保護連合では景観的美しさはもとより、地質学的価値が世界遺産として遜色がないと高く評価し、ハワイ火山公園、ロシア・カムチャッカ火山列島などの世界有数の遺産地区より景観と学術的価値において優れており、世界最高水準であると絶賛しております。

「三多の島」、「平和の島」に「世界自然遺産の島」のワールドネームが加えられたことは、内外済州道民110万人にとって大いなる誇りであり、愛郷心にもえる在外済州人は大いに勇気づけられました。2006年には独自の自治権が付与された特別自治道に昇格し、北東アジアにおける地政学的に優位な条件を背景とする済州道の未来は明るく、希望に満ちております。

当協会は創立当時より今日まで、首都圏における済州道の窓口として、本土からのさまざまな要請を受け入れ、在日済州人との親睦を深め、民間外交を展開するなど、諸般の行事を通じて済州道の発展に寄与してまいりました。

私は2003年、第24代会長に推挙、承認され、重大な覚悟と使命感をもって会長に就任いたしました。かねてより当協会の財政基盤確立のため、収益事業として法人設立の必要性を考えていた私は、株式会社済京を立ち上げ代表取締役役に就任いたしました。

株式会社済京は、皆様方ご承知のとおり、収益還元できる賃貸不動産を購入し、その収益により済州道民協会の活動費あるいは経費をまかない、他方、ビル購入のための金融機関借入金の返済を行ないつつ、剰余金の内部留保に努め、付加価値を高めることにより、末永く済州道民協会の活動を支えていく財政基盤を確立するとともに、将来的には魅力ある株式とし、さらには会員相互間での流通、すなわち換金のための譲渡を認め、有利な資産と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株式会社であります。

株式会社済京は2003年7月、千代田区外神田に土地57.2坪、地上8階建、総床面積360坪の収益ビル、KSKビルを購入いたしました。同ビルはJRの山手線・総武線・常磐新線、地下鉄の銀座線・日比谷線・千代田線など多くの公共交通手段が利用でき、さらには秋葉原地区の再開発事業により、事務所・マンション・商業施設の複合ビルも多数完成、NTTを初めとする多くの企業が進出するなど、申し分ない立地に位置しており、今後ますますその資産価値は高まる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

株式会社済京はさらに、2004年4月文京区湯島3丁目に、ビルの区分所有権80坪を購入し、40年間慣れ親しんだ協会事務所を移転いたしました。協会活動の場にとどまらず、在日済州婦人会、済州青年会など傘下団体の活動の場として広く利用されております。

顧問、相談役として指導的役割を担ってこられた諸先輩をはじめ、在日1世の皆様方におかれましては、その使命と役割を十二分に果たしてこられました。その労苦と恩義に報いるためにも、今こそ在日2世である我々が、時代に即応した形で正しくその歴史と伝統を受け継ぎ発展させていかねばなりません。

故郷の永遠なる発展を願い、「愛郷無限」の言葉を最後にご挨拶いたします。

故郷への熱き想いを後世に

副会長 金 成 日



道民協会設立50周年、これを記念する、この時に執行部の一員として、皆様とともにお祝いできることを、心より嬉しく光栄に存じます。

私は21才の時、青年部の役員としてお世話になり、親子2代にわたり35年以上の時間が過ぎました。この間、青年部長等を歴任、現在副会長として仕事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その間故郷の発展は、目を見張るものがあり、皆様周知の事実として誇らしいかぎりであります。この発展に寄与してこられた、1世をはじめとする諸先輩方の活躍、愛郷心の深さには驚きと尊敬の念に堪えません。

これから私たち2・3世を中心に、その情熱を受け継がなければならず、未来永劫、会員間の親睦はもちろん、その思いを、後世に引き継ぐため、努力していく所存です。これからも会員皆様の、熱き故郷への想いを受けがまいりますので、ご指導、ご鞭撻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尊い愛郷心を大切に

副会長 宋 信 彦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創立50周年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1961年当時是在日同胞に対する民族的差別と偏見が、今以上に厳しく根強いものでした。日本経済の高度成長は順調に進み、失業状態が続いていた在日の人々に就労の機会が増え、収入が増大するとともに生活状態の改善が進み、生活基盤も確保されるようになり、出身地である故郷済州道の経済的な諸事情に対する関心が高まり、在日同胞社会の中でいち早く道民的な組織、在日本済州開発協会が1世の方々を中心に創立されました。

当時まだまだ貧しい故郷済州道の力になりたいと、協会を中心としたミカンの苗木寄贈運動を展開し、島の至る所で出身の村に学校を建て、道路や水道・電気を整備する事業に率先して参加しました。今日のわが故郷済州道の発展は、先輩皆様方が尽力して基盤を作りあげた賜物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私たち世代はそのような尊い愛郷心・精神を受け継ぎ、次の世代に伝える重要な役目があります。当協会も創立して50周年になりますと、時代の流れにより世代交代が進み、会員の構成も2・3世が大多数となり、創立当時の趣旨による事業の推進よりも、会員間の親睦を図るのに力を入れている状況にあります。日本生まれの私たち2・3世は、日本社会に融合することも必然的なものとなりますが、韓国済州道にルーツがあるということを忘れず大事にして欲しいと思います。

私は、協会創立50周年の節目に執行部の一員として協会の活動に参加できたこと、そしてたくさんの方々の知遇を得、親しく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は大きな喜びであり、貴重な財産となり、大切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私は済州道を訪れるたびに、父母が生まれ育った故郷を、肉親と別れ渡った海原が、飛行機の窓から眺められ、雄大な漢拏山が近づくにつれ、なぜかまぶたが熱くなり、ほっとした気持ちになるのは私だけでしょうか。

故郷済州道の発展のために

副会長 李大浩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50周年をお祝い申し上げます。

50年前厳しい逆境の中で、あらゆる困難を克服し、済州道の発展に献身的に努力奮闘され、済州開発協会を設立された先輩顧問および相談役の方々に心から敬意を表し、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私 李大浩は、そのような済州開発協会の先輩方に直接、接することができたひとりとして、先輩方の愛郷心と努力に少しでも報えるように、今後とも故郷済州道そして関東済州道民協会の発展と、後継者の育成に積極的に参加努力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42年前の1968年、私が軍隊で休暇を取り、故郷済州道に帰ったときのことでした。済州開発協会の先輩方が、済州道の経済発展のために、血と汗をにじませ、努力されていた姿を目の当たりにして、感激と衝撃を受けました。

その当時は、済州道の村には、電気・水道の施設がないのが実情でした。しかしながら済州開発協会の先輩方の、物心両面による団結と努力により、各地方の村々まで、電気・水道が設置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また、西帰浦地方でしか栽培されなかったみかんを、済州道全島で栽培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も、済州開発協会の先輩方の指導のおかげでした。

このような輝かしい成果は、50年前開発協会役員である先輩方の熱い愛郷心また祖国と民族、そして故郷済州道の発展を心から願う思いがもたらした偉大な結果だと思っております。現在、済州道は目覚ましい経済発展を遂げ、大韓民国で経済成長第2位の水準に入るまでに成長いたしました。

また現在の執行部は、先輩方の多大なる功績のもと、半世紀が過ぎた今も、その教訓を生かしながら、先輩方の意志を継ぎ、その精神を実現しようと努力しております。

現執行部常任顧問である呉賛益氏の絶大なる求心力のもと、安定的な財政を確保し、よりいっそうの発展を遂げております。またその基盤のおかげで現執行部役員は、いつも団結・和睦しながら、後継者の育成にも全力を挙げていき、済州道の各行事にも積極的に参加でき、ますます有意義で活気ある関東済州道民協会として成長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私たち済州道民協会役員一同は、済州伝統文化を保存し、愛し、済州人の自負心と愛郷心を大切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いつでも懐かしく思え、発展し住みやすく美しい、私たちの故郷済州特別自治道の永遠の発展を心から願っております。

民族和合の先駆者として

副会長 吳 典 秀



会員の皆様、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創立50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最初に、当協会創立50周年を迎え、故郷済州道の発展のために物心両面から多大な貢献をされました草創期の在日1世の方々はもとより、当協会のために活躍された多くの諸先輩方に心より敬意を表します。

当協会の半世紀にわたる歴史は、まさに戦後における在日同胞社会の歴史そのものであります。

私の父は少年時代に来日して以来、一度も故郷済州道の土を踏むことなく、65年の生涯を終えました。

韓日併合から100年、母国光復より65年が過ぎようとしている今日も、このような不幸な境遇に喘ぐ人々が存在するのが現状です。

私たちが在日同胞は、母国の解放そして分断、さらに内戦と離散の過酷な時代を生きた在日1世とその子孫であります。

今日、在日2世、3世が中心の時代を迎えようとしているなかで、我々済州人は、逆境のなかでありとあらゆる困難を克服してこられた在日1世の相互扶助の精神に学び、確固たる愛郷心と矜持をもって、故郷済州道の伝統文化を次世代に伝えていく責任があろうかと存じます。

私は、平和の島済州道に出自を持つひとりとして、辛い過去の歴史から学び、我々済州人が思想信条の差異を超越した民族和合の先駆者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ことを心から願ってやみません。

さらに、世界自然遺産として登録された故郷済州道が、世界中の人々を魅了するような、東北アジアにおける観光文化の発信基地として繁栄することを希望すると同時に、当協会の更なる発展と会員各位のますますのご健勝を衷心よりご祈念申し上げます。

濟州人として飛躍しよう

副会長 高 隆 博



在日本関東濟州道民協会（旧名称：在日本濟州道民協会）が発足して50周年を迎えるにあたり、歴代の会長をはじめとして会員の皆様方に、敬意と感謝の気持ちを述べたいと思います。何よりも自分の生まれ故郷を想い、濟州島の開発・発展のために何ができるのかを考え、自分の生活も顧みず物心両面で支えてこられた諸先輩方の気概のある生き方を、今後、後世に伝えていくことが我々の果たすべき責任のひとつと考えます。

私は1962年目黒区で生まれた2世です。亡くなった父は、16代会長を務めた高河允で、金寧里出身です。わが家は祖父が病気がちで、兄弟も多く、とても貧しく、燃料になる馬の糞を集めたりして家の手伝いをしていたと聞きます。釜山で新聞記者をしていましたが、家計が苦しく、その助けのため、日本に渡り住むようになりました。そこで事業を起こし、長男として兄弟たちを養い、学校に通わせ、故郷の地に家を建て、畑も購入しました。家族はもちろん親戚の助けになったの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

さらに濟州島のために寄付をしたり、道民協会の活動も一所懸命にしていました。父の日本の友人から、「お前の父親の田舎は電気も水道も何にもないところだった」と聞かされたことは、今でも記憶に残っていて、貧しかったので余計に自分の故郷の発展を願っていたのでしょう。

私は青年部の会合に最初に参加したとき、知人もいないので不安でしたが、先輩たちが弟のようにあたたかく接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今でも憶えています。月日が流れ、道民協会発足当初の目的や理念も濟州島の発展とともに少しずつ様変わりし、現在では親睦会の色合いの方が強くなっています。

それでは道民協会のこれからの10年に、想いを巡らせてみましょう。世代も3・4世あるいは5世たちが、日本社会で活躍する時代になって来ています。その若い世代の人たちは核家族化や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により、人との関わりあいが薄くなり、このような会への参加をする人としらない人にはっきり分かれています。また、会社勤めの人が増加し、若いうちは時間がつくりにくい状況です。この1、2年は皆様の努力により増えていますが、この現象は将来会員数の減少につながるでしょう。

また生活の基盤は既に日本にあり、韓国よりも日本の習慣が染みこんでいて、

当然国籍の問題に発展します。過去において我々韓国人は蔑まれ差別され、これによって自分の出自を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時代がありましたが、独断と偏見で言えば、ペヨンジュンによって韓国人が日本の社会で理解されはじめ、堂々と本名を名のれる時代へと変わってきています。が、外国人というだけでどうしても制限されるものは存在します。

2代も3代も異国で生活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その国の一員になることを否定し続けることもどうかと考えはじめています。その人にとっては生まれたところが故郷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からです。よって日本国籍取得者が増えるのも当然です。道民協会がこれからも長く活動していくには、当然会員数の維持が必要で、そのためには大きな意味で国籍を問わず、済州人という捉え方もあるのではないか、あるいは済州島から仕事のため、我々の先輩たち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新しい1世、その家族（実際は20年後位かも）も積極的に入会してもらえる環境を作らなければと考えます。

済州島の更なる発展については、済州島の魅力をもっと増し、日本で観光地として有名になることも必要でしょう。観光が基盤なら現在進めている英語教育都市に日本語も加えたりして、日本語教育も盛んになるような施策もできれば進言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日本からの観光客をいかに増やし、リピートさせるかを考えたとき、日本語が話せるスタッフを多く観光施設に配置したり、案内板の日本語表記の増加も必要です。

ながなが記してきましたが、これからの10年を協会再発展の重要な期間と定め、我々も執行部とともに会員の皆様方にもいっしょになって考えていただき、ご意見を頂戴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これからも与えられた期間、精いっぱい活動していく所存です。末筆ながら、皆様のご健勝とご多幸をお祈りいたします。

会員相互の連携を強く

総務部長 邊 彰 満



このたび、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におかれましては、創立50周年という意義深い節目の年を迎えられ、誠におめでたく、心よりお喜び申し上げます。

在日済州道民の親睦と、郷土の発展に貢献しようという愛郷心から出発した当協会が、設立以来半世紀にわたり、相互扶助の精神に基づき、当協会の向上と健全な発展を図ってこられましたことは、歴代役員、顧問、相談役の献身的なご尽力と会員各位のご努力の賜物であり、深甚なる敬意を表す次第であります。

私は、2004年に当協会に入会いたしました。当時、在日社会とは距離のありました私にとって、道民会での経験は、見る・聞く・体験することのすべてが驚きであり、感動的なことでありました。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をはじめ、夏季郷土学校、故郷訪問事業、済州文化体験事業等で、役員の方々が献身的にご活躍されているのを目のあたりにし、同じ済州人として自身が恥ずかしくなりもしました。

特に株式会社済京とKSKビル会館につきましては、その事業の素晴らしさから在日済州人としての誇りを再認識し、自分にも何か貢献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切に痛感いたしました。

振り返りますと、ハラボジ、ハルモニたちから愛郷心とともに、正直で、勤勉で、正しいことを実行する心と丈夫な体を継承しております。諸先輩方が築かれた素晴らしい当協会を今度は、私たちが我々の子どもや孫に継承できるよう、微力ではありますが貢献していきたいと思いをします。

環境は変化しており、当協会の役割も変わっていくと思いをします。会員相互の連携を今まで以上に強くし、個々では解決できない諸問題に対して応えられるような協会として、末永く継続したいと思いをします。

最後に、もう一度言います。50周年記念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関東済州道民協会 50 周年！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渉外部長 宋 暎 民



まず済州道民協会の50周年を迎え、今日に至るまで当協会と済州道のために、物心両面で支えてくださった尊敬する先輩方々に、心から敬意と感謝を申し上げます。

故郷の済州道から日本に来て、そろそろ20年ほどになりますが、留学生の頃は、故郷の済州を思う心の余裕もありませんでした。日本で社会人になってから、道民協会の皆さんや先輩の方々と出会い、わが済州に対する愛郷心がよみがえりました。

私にとって道民協会はかけがえのない存在だと思います。道民協会に出会い、在日1世から2世、3世の皆さんと接するうちに、皆さんが祖国ではない日本で、過酷で厳しい環境の中で苦勞しながらも、成功し基盤を築きあげ、故郷の済州地域発展と道民のために、みかんの苗木や電気水道、道路など基盤施設を、また韓日交流事業等いろいろな事業を、故郷のためずっと支援し続けて来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お陰で今済州は世界の済州になりました。

私もそのありがたい道民協会の精神を受け継いで見習い、先輩の方々からの教えと配慮のお陰で、今は道民協会役員として6年になりました。まだまだ未熟な者ですが、組織と活動に対して少しでも力になれるように、努力しているところです。

協会の皆さんとニューカマーの私とでは、ニュアンスが少し違うかもしれませんが、意識が合えば何でも出来ると思うし、特に同じ済州人として受け入れ、信頼しあいながらこれからももっと発展し、明るく前進できると思います。

わが済州人の伝統である相互扶助の精神をもとに、これからも積極的に道民協会と故郷済州の交流や、日本における道民協会の尊敬する先輩方々と、後輩の相互協力関係や、在日の同胞とニューカマーとの紐帯関係をよく理解し発展させ、済州人として誇りと自負心を持ち、高尚弘第27代会長以下執行部一同と力を合わせて、協力・交流・発展を図って行き、自分に与えられた仕事を、微力ながら、道民協会の発展のため、済州道の発展のため、努力いたします。

最後に、済州道民協会の素晴らしい50周年を迎え、わが道民協会の皆様方のご健康とご健勝を祈願いたします。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

2001～2010



■ 創立40周年記念式典 2001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1月21日 上野精養軒）



■ 創立40周年記念式典 2001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
（1月21日 上野精養軒）



■ 創立40周年記念式典
2001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
（1月21日 上野精養軒）



■ 第15回夏季郷土学校（7月29日～8月4日）



■ 親睦旅行会（10月28日 勝浦三日月ホテル）



■ 済友会第91回ゴルフコンペ
（10月29日 鳳林カントリークラブ）



■ 第41回定期総会（6月24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

2001～2010



■ 済州道直行便就航記念懇親会（4月19日 済州道）



■ 第16回夏季郷土学校（7月29日～8月4日 済州道）



■ 西帰浦ワールドカップ競技場視察（4月19日 済州道）



■ 2002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1月20日 上野精養軒）



■ 金英秀会長挨拶



■ 理事会（2002年7月6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第6回婦人会定期総会・送年会（12月8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

2001～2010



■ 2003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1月19日 上野精養軒）



■ 第43回定期総会で執行部あいさつ（6月28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婦人会ソウル親睦旅行（10月26日～28日）



■ 在京道民会役員親睦旅行会（6月1～2日 青山やまと）



■ 第17回夏季郷土学校参加学生と引率役員（8月1～8日）



■ 第24代新執行部済州市表敬訪問（8月）



■ 済友会第95回ゴルフコンペ（4月16日 霞ヶ浦ゴルフコース）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

2001～2010



■ 2004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で役員あいさつ（1月18日 上野精養軒）



■ KSKビル披露記念式典（7月9日 上野精養軒）



■ 式典にて呉賛益会長挨拶



■ 在外済州道民会総聯合会定期総会（7月5日 ソウル世宗文化会館）



■ 第18回夏季郷土学校（7月30日～8月4日）



■ 親睦旅行会（11月7日 小湊ホテル三日月）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

2001～2010



■ 2005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会長挨拶
(1月22日 上野精養軒)



■ 功労賞授賞式にて金修一・呉敬進相談役



■ 愛知EXPO開幕式参加の役員たち (4月23日 愛知万博会場)



■ 第1回関東・関西済州道民協会役員懇親会 (11月3～4日 伊東温泉ホテルニュー岡部)



■ 第25代新執行部済州道庁表敬訪問（7月29日）



■ 第9回婦人会定期総会・送年会で呉春花会長挨拶（12月4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第19回夏季郷土学校（7月29日～8月3日）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

2001～2010



■ 2006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鄭平普会長挨拶
(1月14日 上野精養軒)



■ 新成人たちに記念品贈呈



■ 第2回関東・関西済州道民協会役員懇親会 (8月8日 ラマダプラザ済州ホテル)



■ 第7代在外済州道民会総聯合会会長に呉賛益常任顧問就任
(7月1日)



■ 第46回定期総会后、懇親会で新規理事・会員紹介（6月24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婦人会創立10周年記念式典
韓道淑常任顧問へ花束贈呈
（12月2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式典にて呉春花会長挨拶



■ 在京道民会役員懇親旅行会（9月10日 ラマダプラザ済州ホテル）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

2001～2010



■ 2007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で金泰煥知事挨拶（1月13日 上野精養軒）



■ 済友会第111回ゴルフコンペ
（11月12日 バイロンネルソンCC）



■ 青年部総会・懇親会（5月7日）



■ 婦人会巨済島・釜山の旅（9月27日 金泳三大統領生家で）



■ 親睦旅行会（11月11日 いわき湯本温泉吹の湯）



■ 第6回在外道民会役員郷土学校（10月4日）



■ 第11回故郷訪問事業実施（10月5～8日）



■ 在外済州道民会総聯合会第11回定期總會（10月6日 済州道）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

2001～2010



■ 2008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で役員挨拶（1月19日 上野精養軒）



■ 金泰煥知事から世界自然遺産写真額縁贈呈



■ 金知事と功労賞受賞者達



■ 済友会第114回ゴルフコンペ（9月10日 阿見ゴルフクラブ）



■ 第48回定期総会（6月21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第4回関東・関西済州道民協会役員懇親会（10月4日 済州ラマダプラザホテル）



■ 第22回夏季郷土学校（7月28日～8月1日）



■ 2008済州道文化賞受賞の呉賛益顧問夫妻（12月23日 済州道文芸会館）



■ 第7回在外道民会役員郷土学校（10月2～3日）

2001～2010



■ 在外済州道民会総聯合会第12回定期總會（7月29日 済州道）



■ 親睦旅行会（11月16～17日 箱根湯の花温泉）



■ 第60周年4・3慰霊祭に参加（4月3日 済州道4・3公園）



■ 婦人会蓼科・山中湖旅行（9月21～23日）



■ 2009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
(1月31日 上野精養軒)



■ 新成人達と記念品を贈った来賓



■ 第23回夏季郷土学校 (8月3～7日)



■ 婦人会第13回定期総会・送年会
(12月6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婦人会総会に参加の協会役員



■ 第1回在日同胞子女高校生招待済州文化体験事業（7月31日～8月3日）



■ 第49回定期総会（6月20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初めて着たチマチョゴリ



■ 済友会第117回ゴルフコンペ
（6月23日 栄戸ヒルズC・C）



■ 済友会第119回ゴルフコンペ
（9月29日 阿見ゴルフクラブ）



■ 2010年家族同伴新年会・成人式（1月23日 上野精養軒）



■ 済州商工会役員と協会役員（5月12日 協会事務局）



■ 李時香民団東京本部前団長慰労会にて（5月12日 上野精養軒）



■ 婦人会日帰り旅行（5月19日 茨城国営ひたち海浜公園）

写真で見る10年の歩み

2010

2001～2010



■ 済州道庁表敬訪問（8月3日）



■ 第50回定期総会（6月19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済州道知事就任記念（7月1日 道知事官邸）



■ 婦人会第14回定期総会・送年会で
第7代役員（12月4日 ホテルパークサイド）



■ 2010在外済州道民会総聯合会定期総会（8月2日）

Tour Map of JEJU

濟州觀光案内地図

濟州市
Jeju-si

濟州市

西帰浦市

凡例

●	国定公園	●	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国定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自然保護区
●	国定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自然保護区
●	国定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自然保護区
●	国定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自然保護区
●	国定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自然保護区
●	国定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自然保護区
●	国定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自然保護区
●	国定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自然保護区
●	国定自然公園	●	自然保護区	●	自然保護区

索引

山・洞・谷 サンゴムツリ 20 北山 30 南山 30 洞窟・滝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滝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滝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洞窟 10	山・洞・谷 山 30 洞 30 谷 30 洞窟・滝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滝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滝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山・洞・谷 山 30 洞 30 谷 30 洞窟・滝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滝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滝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洞窟 10 滝 10
--	--	--

「済州・新世界七不思議自然版選定 日本地域推進委員会発会式」開かれる！



世界で最も美しい7大自然景観を決定する28ヵ所の最終候補に残った済州道の日本地域推進委員長である当協会の呉賛益常任顧問の主催により、2月18日に帝国ホテルにおいて、汎国民推進委員会鄭雲燦委員長、駐日本大韓民国李京秀政務公使、禹瑾敏済州特別自治道知事、文大林済州特別自治道道議会議長、汎国民推進委員会梁元賛事務総長、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鄭進団長、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金賢中総領事、上海推進委員会丁漢榮委員長、在日本韓国商工会議所崔鍾太会長、在日本大韓民国婦人会中央本部余玉善会長、在日本大韓民国民団東京地方本部金龍濤団長など、多数の来賓を迎え、日本地域推進委員会の発会式が開催された。

初めに、同委員会の呉賛益推進委員長は「最終候補に残された28ヵ所の中で、済州道は唯一豊かな自然と人間が共生している恵みの島である」ことを強調し、11月の投票締め切りに向け、「在日同胞はもちろん日本の方々にも積極的に投票をして頂くよう呼びかけていく」と抱負を語りました。続いて、汎国民推進委員会の鄭雲燦委員長が「日本における協力があれば、北東アジア全体の遺産としてかならず選定されるだろう」と強調した。また、民団中央本部鄭進団長は「7大自然景観に選定されれば、韓国のみならず日本にも好影響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ので、日本国内で広く広報活動をし、協力を呼びかけたい」と挨拶があり、禹瑾敏済州特別自治道知事は「何度でも電話投票は可能であり、在外同胞の多い日本、中国、米国などの協力があれば、必ず選定される」と自信に満ちたアピールがあった。

その後、壇上において、テープカットが行なわれ、引き続き、ミュージシャンの梁邦彦、日本サッカー代表李忠成、そして格闘家の秋山成勲の各氏が広報大使に委嘱され委嘱状がそれぞれの関係者に伝達された。その後、会場を隣りの部屋へ移し、文大林済州特別自治道道議会議長の乾杯の音頭により、懇親会がスタート。なごやかな雰囲気の中、11月には必ず選定されることを、お互いに確認し、広く日本全国に広報活動を展開し、1票でも多くの票を獲得することを誓いながら発会式を終えた。

濟州島の新世界7大自然景観



▶ 広報大使に委嘱された格闘家秋山成勲氏と記念撮影



▶ 呉賛益委員長挨拶

日本地域推進広報大使委嘱

秋山成勲氏 (格闘家)

梁 邦 彦氏 (ミュージシャン)

李 忠 成氏 (サッカー選手)



▶ 左から文大林議長、鄭雲燦委員長、呉賛益日本地域委員長夫妻、禹瑾敏知事

選定を成功させよう！



▶ 開会式



▶ 鄭雲燦委員長から格闘家秋山成勲氏に広報大使委嘱状授与



▶ 左から高斗心、サッカー選手李忠成(中央)と両親、呉委員長、梁事務総長



▶ 作曲家梁邦彦氏の代わりに母親が広報大使委嘱状授与後記念撮影



▶ テープカッティング

日本各界、在日同胞へアピール



▶ 呉委員長挨拶



懇親会の様子◀



▶ 懇親会の様子



▶ 拍手を送っているメイン席

日本地域推進委員長の拝命を受けて

日本地域
推進委員長 呉 賛 益



済州道は2002年ユネスコ(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から生物圏保存地域として認定され、更に2007年世界自然遺産、2010年には世界的に貴重な地形、地層として世界地質公園

(ジオ・パーク)として認定されて、いわゆるユネスコの三冠に選定されており、自然景観の優秀性は世界的に広く認め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スイスに本部を置く非営利財団「The New Wonders」は「私たちの遺産は私たちの未来」とのスローガンの下、全世界の遺産並びに自然観光地に対する、考証、保全、保護を目的に、世界で最も美しい自然景観7カ所を選定する目的で、事業計画を策定し2007年候補地を募ったところ、441カ所より応募があり、これまでの選定経過として、

第1次インターネット投票が2007年7月から2008年12月まで行なわれ、候補地441カ所から261カ所を選定。

第2次インターネット投票は、2009年1月から同年7月まで行なわれ、候補地261カ所から71カ所を選定。

第3次インターネット投票は、2009年7月に行なわれ、最終候補地28カ所が選定されました。

北東アジアからは日本の富士山、中国の揚子江が脱落し、済州島のみが最終候補地に選出されております。

決選投票は、2009年7月から2011年11月10日までインターネット投票による投票及び電話による投票が進行中であり、済州島の特筆される競争力は、自然が人間の生活と調和をなしており、城山日出峰、万丈窟、石罅などある済州島の自然景観が特に印象

的な点にあります。

また、済州島を除外した27カ所の候補地の大部分は文明と自然に明確に区分されますが、済州島の景観は人間の生活に密接に関連しているところにあります。

世界7大自然景観に選定された場合に期待される効果としては、

●国家ブランド価値の上昇

輸出主導型の工業国家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自然景観をよく保存している親環境的な国家イメージを与えることができ、国家ブランド価値の上昇に寄与する。

●我が国への海外観光客の誘致増大に寄与

美しい自然景観が全世界に広く知られることになり、レジャーや安らぎを求める目的の観光地として観光客誘致効果をもたらす。

●環境保護に寄与

世界の人々が認定する自然景観をもつ国家として、自然景観保護に対する政府、民間団体、地域住民らの関心が増えることにより、環境保護に寄与する。

●国民の自尊心(プライド)の高揚

世界7大自然景観国の国民としてプライドが高まり、愛国心が高揚する。

●国家並びに自然景観の広報効果

世界7大自然景観主催者側(The New7wonders)の持続的な広報活動により、映画・ドラマ・ドキュメンタリーの撮影地として脚光を浴びることになります。

世界7大自然遺産の選定にはインターネットや電話を通して世界10億の人々が参加することが予測され済州島を世界に知らしめる良い機会になるのは

必定でありましょう。

非営利財団「The New Wonders」は既に第1回キャンペーンである世界の人間の手による建造物7カ所、

1. ペルーのマチュピチュ
2. メキシコのマヤ遺跡
3. ローマのコロッセウム
4. インドのタージマハール
5. ヨルダンの古代都市ペトラ
6. 中国の万里の長城

7. ブラジル・リオデジャネイロの巨大イエス像を新世界7大不可思議として選定しておりますが、今回はその自然版となります。

2010年12月13日、鄭雲燦前国務総理を委員長とする「世界7大自然景観選定汎国民推進委員会」の発会式がソウルにて行なわれ、2011年1月13日、済州道にて盛大な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が挙行され、その席上で私は鄭雲燦委員長より、「日本地域推進委員長」を拝命し、委嘱状の伝達を受けました。

オリンピックやサッカーのワールドカップ、また万国博覧会等の各種イベントは世界中に国の存在感を示し、先進国として認知される印象の度合い、経済力の向上とその影響力は非常に大きいものがありますが、刹那的ではありません。

今回最終的に済州島が選定されることにより、4冠を達成することになれば、インターネット配信等により永続的に美しい自然景観が全世界に広く知られることになり、我が国への海外観光客の誘致効果をもたらすことは、富士山を代表とする日本の観光地にも波及することは必然のことであり、その計り知れない経済効果は韓・日が共有することになり、韓・日、日・韓の友好親善に寄与することでありま

しょう。

輸出を国の基幹産業とする工業立国韓国が自然環境を保護する、環境にやさしい平和な国であるとの国際的イメージの向上にもつながります。

日本地域推進委員長を拝命した私は、鄭雲燦委員長、禹瑾敏済州道知事、鄭進民団中央本部団長をはじめ、内外の来賓や報道関係者の参席を賜り、「日本地域推進委員会発会式」を東京帝国ホテルにて挙行いたしました。

既に広報大使として国民的女優と言われる高斗心女史が任命されておりますが、日本地域広報大使として新たに済州道出身作曲家梁邦彦氏、格闘家でタレントの秋山成勲氏、先のアジアカップ決勝戦で決勝ゴールを決めた李忠成選手が任命され、その披露も行なわれる等、各界を代表する方々より激励辞を賜わり盛況裏に終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

発会式後、大使館や民団中央本部をはじめとする各団体機関への協力要請の挨拶から始まり、2月22日、横浜総領事館、民団神奈川地方本部を皮切りに仙台、札幌、福岡、広島、神戸、大阪、名古屋、新潟の総領事館並びに民団地方本部に協力要請依頼に訪問してまいりました。

それぞれの訪問先にて与えてくださる激励のお言葉は、私にとりまして勇気を与えてくださるとともに、関係各位の熱意が伝わってまいります。

地勢学的に北東アジアの要の位置にあり、韓国の最南端に浮かぶ平和の島「済州島」が、我が国のみならず、日本、中国を含む北東アジアの宝の島として、世界7大自然景観選定に向け、私は最大の努力をする所存であります。

尚、下記に発会式出席のご来賓の皆様と最終選考に選出されている候補地28カ所を列記致します。



7 大自 然 景 観 の 最 終 候 補 地 28 カ 所

1. ブラジル	アマゾン（川）
2. ベネズエラ	エンジェルフォールズ（滝）
3. カナダ	ファンディ湾
4. ドイツ	ブラック・フォレスト（黒い森）
5. アラブ首長国連邦	ブ・ティナ島
6. アイルランド	モハーの断崖
7. イスラエル・ヨルダン	死海（湖）
8. プエルトリコ	エルユンケ（国立の森林公園）
9. エクアドル	ガラパゴス（島）
10. アメリカ	グランド・キャニオン（渓谷）
11. オーストラリア	グレートバリアリーフ（サンゴ礁）
12. ベトナム	ハロン湾
13. アルゼンチン・ブラジル	イグアスの滝
14. レバノン	ジェイタ洞窟
15. 韓国	済州島（島）
16. タンザニア	キリマンジャロ（山）
17. インドネシア	コモド国立公園
18. モルディブ	島
19. ポーランド	マズーリ（湖）
20. イタリア・スイス	マッターホルン（山）
21. ニュージーランド	ミルフォードサウンド（フィヨルド）
22. アゼルバイジャン	泥火山（山）
23. フィリピン	プエルト・プリンセサ地下川
24. インド・バングラデシュ	スンダルバンス（国立公園）
25. 南アフリカ	テーブルマウンテン（山）
26. オーストラリア	ウルル（岩）
27. イタリア	ベズビオ火山
28. 台湾	玉山（山）

(順不同)

お 名 前	団体名	役職
鄭 雲 燦	済州新世界 7 大景自然観選定汎国民推進委員会	委員長
禹 瑾 敏	済州特別自治道	道知事
文 大 林	済州特別自治道	道議会議長
梁 元 賛	済州新世界 7 大景自然観選定汎国民推進委員会	事務総長
秋山成勲	広報大使	格闘家
丁 漢 榮	上海地域推進委員長	上海地域推進委員長
清 水 潔	文部科学省	事務次官
岩城光英	国会議員（前内閣官房副長官）	参議院議員
樋 高 剛	環境省	大臣政務官
中村敦夫	元参議院議員	岩城高校 OB
李 京 秀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政務公使
金 賢 中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領事部）	総領事
姜 基 洪	韓国文化院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文化院長
崔 炳 美	韓国文化院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行政支援チーム・チーム長
孔 洞 植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参事官
金 成 鎬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文化広報官室・広報公使補佐
鄭 進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団長
許 孟 道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副団長
金 昭 夫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副団長
韓 在 銀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副団長
林 三 鎬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副団長
呂 健 二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副議長
金 宰 淑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民団中央 常任顧問
夫 昇 培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顧問
金 昌 植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監察委員長
李 時 香	SUN・ROYAL・GROUP	会長
金 龍 濤	在日本大韓民国民団東京地方本部	団長
朴 昭 男	在日本大韓民国民団東京地方本部	副団長
金 保 雄	在日本大韓民国民団東京地方本部	副団長
金 成 日	在日本大韓民国民団東京地方本部	副団長



(順不同)

お 名 前	団体名	役職
金 秀 吉	在日本大韓民国民団東京地方本部	議長
呂 起 成	在日本大韓民国民団東京地方本部	副議長
李 寿 源	在日本大韓民国民団東京地方本部	監察委員長
卞 鐘 彦	在日本大韓民国民団千葉県地方本部	団長
金 鎮 得	在日本大韓民国民団千葉県地方本部	副団長
李 富 鉄	在日本大韓民国民団神奈川県地方本部	団長
文 基 守	在日本大韓民国民団高知県地方本部	副団長
朴 茂 安	在日本大韓民国民団愛知県地方本部	副団長
朴 安 淳	在日本大韓体育会	会長
金 泰 珍	在日本大韓体育会	専務理事
趙 靖 芳	在日本大韓体育会	事務局長
崔 鐘 太	在日韓国商工会議所	会長
申 均 三	(有)東洋レジャー	代表取締役
朴 忠 弘	(株)トラストパートナーズ	代表取締役会長
黄 鍾 吉	在日韓国商工会議所	常務理事
康 正 亨	兵庫韓国商工会議所	事務局長
金 光 一	東京韓国商工会議所	会長
金 修 一	東京韓国商工会議所	副会長
金 淳 次	株式会社エスエープランニング	代表取締役
高 瑋 鉉	高山商事株式会社	会長
張 永 植	愛知韓国商工会議所	会長
康 正 亨	兵庫韓国商工会議所	事務局長
千 柄 勝	東京慶尚北道道民会	代表取締役
高 尚 弘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	会長
金 和 男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	顧問
宋 信 彦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	副会長兼財務部長
李 大 浩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	副会長兼組織部長
高 隆 博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	副会長
朴 時 男	在日本関東済州道民協会	宣伝部長
柳 箕 桓	在日関東地区忠清道民会	会長

(順不同)

お 名 前	団体名	役職
具 末 謨	在日全羅南道道民会	会長
余 玉 善	在日本大韓民国婦人会中央本部	会長
姜 貞 子	在日本大韓民国婦人会中央本部	副会長
徐美也子	在日本大韓民国婦人会中央本部	副会長
夫 順 末	在日本大韓民国婦人会中央本部	常任顧問
金 貞 子	在日本大韓民国婦人会東京地方本部	会長
河 貴 明	在日本大韓民国婦人会東京地方本部	副会長
金 英 淑	在日本大韓民国婦人会東京地方本部	副会長
朴 善 貴	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中央本部	会長
金 璟 玉	(株)ダイムラー	代表取締役
洪 正 敏	東京韓国青年商工会	筆頭常務理事
宋 寛	民団新聞	営業部長兼編集委員
鄭 眞 一	民団新聞	編集長
姜 昌 萬	株式会社統一日報社	代表取締役
鄭 重 国	株式会社統一日報社	記者
溝口恭平	株式会社統一日報社	編集部
長野昭秀	アジアニュースセンター東京支社	支社長・記者
浮ヶ谷一憲	東洋経済日報 東京支社	編集部・記者
高 仁 琴	済民日報	東京特派員・支社長
康 栄 淳	漢拏日報日本支社	支社長
金 哲 雄	KPI 通信社	代表取締役
金 哲 也	あすか信用組合	専務理事
木村 弘	あすか信用組合	本店営業部長
金 龍 水	あすか信用組合	総務部長
田中晃三	東京日韓親善協会連合会	理事長
高 亨 叔	世界海外韓人貿易協会 (OKTA) 東京支会	副理事長
李 孝 烈	在日本韓国人連合会	副会長
金 仁 源	在日本韓国人連合会	文化局長
洪 聖 協	在日本韓国人連合会	組織局長
金 榮 湖	韓国観光公社東京支社	支社長



(順不同)

お 名 前	団体名	役職
権 炳 典	韓国観光公社東京支社	部長
友野阿祐美	済州特別自治道観光弘報事務所	所長
権 炳 燦	株式会社大韓航空	常務 日本地域本部長
姜 仁 培	済州グランドホテル・吾羅カントリークラブ	東京事務所長
高 海 正	(株)ケーブラン	代表取締役
慎 三 範	(株)YAMAZEN	取締役副社長
松本安二	共同通信社	編集局外信部 記者
山本地平	共同通信社	編集局運動部 記者
名村隆寛	(株)産経新聞 東京本社	編集局外信部 専門職
菊地哲郎	(株)毎日新聞社	常勤顧問
平 田 哲	(株)NHK グローバルメディアサービス	代表取締役社長
川村晃司	(株)テレビ朝日	解説委員
近松久義	(株)金融経済新聞	編集委員
石 井 正	(株)時事通信	解説委員
若松秀俊	東京医科歯科大学	教授
劉 在 營	SBS 東京支局	カメラマン
鄭 南 求	ハンギョレ新聞	東京特派員
金 大 弘	K B S	東京特派員
李 徳 和	韓国民団葛飾支部	支団長
鄭 基 旭	韓国民団江東支部	支団長
鄭 和 稔	韓国民団江東支部	副団長
金 正 治	韓国民団墨田支部	議長
夫 奉 秋	韓国民団台東支部	支団長
白 一 善	韓国民団文京支部	支団長
郭 成 浩	韓国民団港支部	支団長
鄭 良 洙	韓国民団目黒支部	支団長
李 旻 錫	韓国民団目黒支部	事務部長
南 鎮 珏	韓国民団新宿支部	事務部長
鄭 己 順	韓国民団荒川支部	事務部長
鄭 廣 幸	韓国民団江戸川支部	事務部長



民団新聞2011年2月23日



コリアニューズ 2011年2月25日



統一日報 2011年2月23日



ひと

ひと:呉賛益さん＝済州島を「世界7大自然景観」にと活動

◇呉賛益(オ・チャンイク)さん(64)

「海へと直接落ちる滝や奇岩の数々。大阪府ほどの小さな火山島に独特の自然が凝縮されているのが魅力です」。スイスの財団が主宰する「世界7大自然景観」に韓国・済州島を入れようと奮闘中だ。両親まで先祖代々が島で暮らした在日2世の経済人という立場から、1月に日本での推進委員長を委嘱された。

済州島はかつて、政治抗争で敗れた人たちが送られた流刑の地だった。自身の祖先も約500年前に流されてきたという。26歳で初訪問したときは「貧しいな」と感じる一方で、自然や魚介類中心の食文化にすぐ溶け込めた。

02年に生物圏保存地域、07年に世界自然遺産、10年に世界ジオパーク(地質公園)に選ばれた。島民が誇る島の象徴は標高1951メートルのハルラ山。「みんなが愛しているのでゴミ一つありません」。戦前、大阪との定期航路があり、在日1世は島出身者が多い。その人脈も生かし、PRのため韓国領事館のある札幌、広島、福岡などへの行脚を始めた。

7大景観は、アマゾン川やキリマンジャロなどを含む世界28の最終候補地から絞り込む。ネットや電話での投票を11月10日まで受け付けている。「7大景観に選ばれ、世界自然遺産などと合わせて“4冠”となれば、世界からもっと観光客が訪れ、日本にも波及効果があるはずです」。投票は主宰者ホームページ(<http://www.new7wonders.com>)で。<文・真野森作／写真・三浦博之>

=====

■人物略歴

福島県いわき市出身。製紙会社の社会人野球選手を経て東京都内で不動産業を経営。東京韓国商工会議所名誉会長。

毎日新聞 2011年4月19日 東京朝刊



呉賛益 東京韓国商工会議所名誉会長 済州島を「世界7大自然景観」にと活動＝東京都千代田区で2011年2月24日、三浦博之撮影